

창조적이며 투철한 역사인식을 지닌 Specialist

이 무희 <현대중공업(주) 이사>

지난해 연말에 닥쳐 온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때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의해 몸집이 커져 있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에 돌입하면서, 일자리 문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지난 시절을 살아 온 우리들 모두가 쌓아온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살림살이가 거덜났는데, 그 책임과 과오가 몇몇 지도층에 국한 되었다거나, 몇몇 부도덕한 기업인에게만 한정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빠져서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체에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책임을 맡아 일해 온 저로서는 이 분야에서의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조선해양 공학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경제의 재황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대학들이 Generalist를 키우는데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Specialist 부재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Specialist는 우리말로 「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중에 혹시 미래의 진로를 대기업이나 혹은 소위 잘나가는 업종에 두고 자신의 전공을 무시하

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각자의 특기나 전공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던 까닭에 학교의 취업지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은 고지식하게 한 우물을 판 투철한 장인정신의 소유자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밖에는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이상, 이제부터라도 대학은 탁월한 Specialist를 길러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 역시 자신의 전공분야에 깊이 몰입하여 진정한 쟁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조적 발상을 할 수 있는 Specialist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즘의 세계는 컴퓨터와 통신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기존의 경제원리를 지탱해 오던 수확 체감의 법칙이 설 자리를 잃고, 먼저 개발된 제품이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따라서 재래의 기술과 이론에만 집착해서는 이 세계에 진입하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창조적 발상을 하는 자만이 이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해양공학의 역사는 매우 일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조선해양산업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탁월한 생산기술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타고난 근면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

특집 | 교육개혁과 기업이 바라는 새로운 조선해양공학도상

다. 하지만 세계와 경쟁하기에는 근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면성이 더욱 큰 경쟁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독창적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조선해양공학도들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뛰어넘는 창조적 발상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하며,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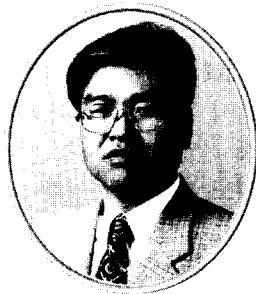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투철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힘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을 잃고 나자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이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나온 우리의 역사속에서 수없이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경제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한 힘의 논리만이 존재합니다. 경제문제가 이념과 사상의 제 문제에 우선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경제적 힘을 비축하지 않고는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 어느 순간에선가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역사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위기를 헤쳐 나왔던 경험을 되살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국내 조선공업은 과거와 크게 다름없이 제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나라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 궤도를 이탈하게 될 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 역사속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거뜬히 헤쳐 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투철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식과 이론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을 할 줄 아는 조선해양공학 전문가들이 현업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조선공업도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조선해양 공학도 여러분의 학업에 더욱더 정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무현

- 1950년 4월 14일생
- 1973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현재 현대중공업(주) 인사담당 이사